

조경업계의 국제화시대 대응방안

한국조경사회
회장 김 윤 제

I. 서 언

건설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국제화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 조경업계의 현실을 살펴보고, 국제화에 대비해야 할 몇가지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II. 조경분야의 도입배경과 현황

정부는 국토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와 경관의 악화를 방지하고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유지케 하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전문기술분야를 두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 1973년에 조경분야를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경학과를 신설하여 현재 9개 대학원, 23개 대학, 4개 전문대학 등 36개 학교에서 연간 1,200명씩 졸업시켜 8,200여명의 조경전공인이 배출되었고,
- 1974년에 조경공사를 독립된 영역으로 탄생시키고, 1980년에 조경전문면허를 신설하였으며, 1982년에 종합조경공사를 신설하여 1992년 9월 현재 160여개의 전문조경공사업체(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와 33개의 종합조경공사업체(92년말 15여개 업체의 증가예상)가 영업중 이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76명, 조경기사1급 3,504명, 조경기사2급 3,881명 등 7,461명의 조경기술자가 배출되어 건설업계, 설계용역업체, 정부 및 투자기관, 교육기관, 기타분야 등에서 활동중이다.
- 조경설계용역업체로는 종합에 22개, 전문에 28개 등 50여개사가 조경설계용역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조경수생산업체(생산자 포함)로서 한국조경수협회에 가입된 회원수는 310개 (종합조경 33개, 전문 77개, 생산자 200개)에 달한다.

III. 조경업계의 현실과 조경의 위상

1. 조경시공업계의 현실

국내조경공사의 시공물량은 최근 신도시개발, 대단위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등으로 인하여 급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업체의 양적인 증가, 비현실적인 조경수목단가로 인한 조경수생산의욕의 상실과 이에 따른 수종 및 물량의 품귀현상초래, 조경시설물 품셈의 비현실성과 시설물 생산소재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자재난,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수주시장에서 회사의 존폐를 의식한 저가투찰에 의한 수주, 악화된 자금난 등은 조경시공업계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1. 조경분야 위상격하의 위기와 주장

이러한 현실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정부에서는 건설시장의 개방과 국제화를 앞두고 건설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생산체계구축을 위하여 건설업면허체계의 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 개편 기본방향에 나타난 조경분야의 위상을 보면 한마디로 아버지 계열에서 아들의 계열로 위상이 격하되는 상황이 되고 만다. 이렇게 조경분야의 위상이 격하되도록 개편방안이 나오게된 원인은 정책결정자, 건설행정가, 건설인, 일반국민 심지어는 조경인에게 조경분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하도록 하려는 업계, 학계, 조경기술자 등 조경인들의 단합된 의지실현과 홍보노력의 부족에 있다고 본다.

※ 개정방안에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 ① 종합건설업·영업범위의 주요부분에 조경공사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종합건설업에서의 조경의 기능, 특성,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데서 온 소치일 것이다. 종합과학예술로서의 조경분야가 토목, 건축분야에서 다루지 않은 영역에 주요전문분야로 참여되어야 경제적 가치 이상으로 중요한 환경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즉,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조경분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조경분야의 독립성고유성을 인정해주고 종합건설업 영업범위의 주요부분에 조경분야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② 일반건설업에도 독립된 영역인 조경공사업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조경공사업을 전문건설업으로 하락시키고 있다. 이는 조경분야를 토목·건축분야와 같이 독립된 분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조경분야가 토목·건축분야에 흡수·예속되어 조경업역의 침해는 물론 조경분야의 독자성이 상실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는 국내건설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면허체계 개편방향이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조경공사업 면허를 건축·토목과 같이 일반건설업으로 분류해야 된다.

조경분야의 이러한 위상격하는 그동안 정부시책에 따라 꾸준히 성장해 왔고 또한 이번 조경인의 올림픽인 IFLA한국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서 국내외에 인식된 한국조경의 위상확보와 조경분야의 독자적인 발전에 치명적인 저해를 가져오게되며, 조경분야가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후퇴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배출된 수많은 조경학과 졸업생, 조경기술자 등 고급인력들의 진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조경인의 설자리를 점차 잃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조경전문인력의 적정한 수용과 국가사업의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부기구안에 조경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조경직종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Ⅳ. 국제화시대를 맞이하는 조경업계의 실태와 국제화 준비

조경분야는 건설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없이 국제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내조경시장을 볼 때 조경시공업은 식물소재부분은 국지성이 강하므로 국내업체의 경쟁력이 외국업체에 비해 강하다고 보나, 조경시설물 부분은 대량생산체계를 구비한 외국기업이 국내대형공사에 턴키로 참여할 시에는 외국업체의 경쟁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 조경업계의 국제적 진출은 대형조경공사에 참여한 기회는 많지 않으며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로 수주된 공사에 부여되는 한 부분으로 진출하였으며 국내조경업체는 건설회사의 감독하에 수행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 건설시장이 개방됨으로서 외국프로젝트에 우리업체가 입찰참가가 가능함으로 국제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선진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을 계기로 국내업체도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으로 조경업의 선진화를 기해야 하며 이러

한 외국업체들과 합작투자, 기술협력 및 공동도급을 통하여 우리기술인력이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선진기술을 터득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시공경험 등을 바탕으로 제3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외국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설계도서의 정확한 해독과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직한 시공이 요구되며, 어떠한 공사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공법의 연구 및 기술개발과 대형공사 소화를 위한 기계화 시공의 개발과 기술축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국제화시대를 맞이하는 수준있는 조경기술인력의 확보와 인재 육성에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학계에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국제화 감각을 익힌 인재를 육성 배출토록하며, 조경기술자, 경영인들이 해외연수와 IFLA대회 등 국제대회에 다수 참가하여 국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경시설물 부분은 적정의 품셈제정과 자재가격의 현실화, 노임의 현실화로 경쟁력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V. 조경소재산업계의 현실과 국제화에 대비한 과제

1. 조경수 생산업계 현실과 단가현실화

조경수 생산업계는 7년이상이나 묶여온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조경수목의 정부단가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일부수목의 생산이 단절되었고, 관목·화목류는 농촌일손 부족현상과 겹쳐서 수목생산의욕이 상실되어 수목의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조경수목단가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조경학회 등에 용역을 주어 과학적인 수목 생산원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그 보고서를 정부에 건의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조경수목단가의 현실화는 조경수 생산자에게 활기찬 생산의욕을 되돌려 줄 수 있고 조경시공업체에게 시공의욕을 북돋아 주게 되며, 소재의 빈곤에서 탈피하고 내수시장을 보호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화를 염두에 둔 조경수생산업계의 과제

① 생산기술의 현대화와 컨테이너재배

조경수목품질의 고른 육성과 생산비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미선진국과 최근 일본에서 시험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컨테이너재배 기술을 이용한 조경수생산을 들 수 있겠다. 컨테이너 재배기술을 이용하면 이식후 하자발생의 절감, 굴취, 상하차, 운반, 식재사후관리 등 여러면에서 기존의 노지재배방식보다 월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② 조경식물소재의 다양화 및 교류의 활성화

우리풍토환경에 알맞은 외국수종을 구체적으로 선별·도입하여 이용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의 고유수종의 우수성, 다양성은 한국인보다는 외국인에 의해서 소개되고 전파된 경우가 많았으며, 우량품종을 육성하여 고가로 역수입되는 기현상을 빚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우수한 고유조경식물을 선발, 실험, 훈련, 육성하여 국내이용 뿐 만 아니라 외국에도 소개할 수 있는 자생적인 민간단체의 출현이 요구되고 있다.

식물분야의 교류는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조경식물소재의 이용유형에 관한 최신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조경식물분야의 국제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조경식물소재생산과 관련된 장비의 현대화

조경식물의 특성상 기계적 생산은 곤란하겠지만 부분적으로는 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생산효과와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는 굴취에 이용되는 수동굴취기, 굴삭기와 호크리프트를 이용한 상하차 및 식혈작업 정도일 것이다.

일본에서 전반적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생산관리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비, 기계, 전력, 급수, 운반수단 등이 종합적으로 생산포지에서 이용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생산의 현대화와 국제화에 이르는 길이 될 것 같다.

④ 조경식물소재의 본격적인 분류작업

국내식물분류의 현황은 식물학적 차원과 식물자원을 파악한 정도 혹은 산림이용에 관한 도감류의 발행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이고 환경과 조경문제와 관련된 그 성상과 특성의 연구 및 이에따른 분류작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교목·관목류는 물론 각종 지피식물과 양치식물류에 관한 전문도감까지 여러종류가 발행되어 있어 그 나라의 조경식물소재의 생산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조경용 식물소재의 분류작업을 우리실정에 맞도록 하여 결과를 하루속히 펴내야 할 것이다.

⑤ 인적교류의 활성화

선진국과 인적교류에 있어 실무기술자의 교류는 학문분야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 같다. 현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설계와 시공기술, 생산기술과 관련된 인적교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경식물생산장비 및 기계의 운용기술, 현대화된 생산포장의 개발과 운영기술, 식물소재의 취급기술, 생산 및 출하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 도입하는 것이 조경식물소재생산의 현대화 국제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VI. 결 언

20년만에 조경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해 준 IFLA한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조경의 위상은 확인 되었으나 건설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국제화시대에 돌입하게 되는 조경분야에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으며, 이러한 난제들을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조경인 모두가 한마음 한목소리로 뭉쳐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질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다.